

관세가 철폐되면 대일농산물수출 유리하다?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일 FTA협정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현행 관세율이 12%인 김치는 1,400만불, 9.6%인 밤은 2,200만불의 대일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한·일 FTA 협정의 체결은 일단 한국 농산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영향이 올까? <편집자주>

한 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초연구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구상 : 평가와 전망」이다.

농업부문의 수출은 6,200만 달러의 증가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는 4,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분야의 긍정적 효과는 이보다 큰 8억 5,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즉, 가공식품 분야가 한·일 FTA 체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산업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의 관세철폐의 산업별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농림수산물 대일본 수출은 1.46%(물량기준) 증가하고 음·식료품 수출은 7.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에도 대일본 수입 증가율이 각각 7.9%와 16.34%로 나타나 수출 증가율을 능가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수출증가 규모가 수입증가보다 커 농림수산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는 33억 6천달러 증가하고 국민 총생산은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품목별 수출 효과 등 CGE 모형에서 추정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출수요 함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GE 모형의 결과는 부분균형 모형 결과보다 파급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CGE 모형은 국민경제 전체를 모형에 포괄하여 교역 상대국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분석에 들어가는 부문은 통합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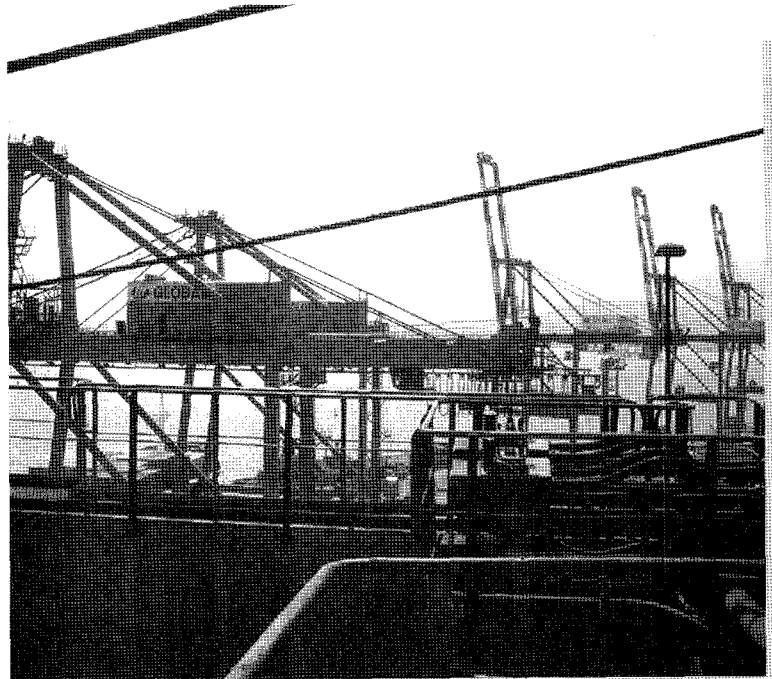
한 한국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부요 품목별 수출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계량경제 모형에 의한 수출수요 함수 추정은 일정 기간 이상의 수출관련 자료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꾸준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농산물 가운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10대 수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공식품 및 기타 농산물은 다음에서 다룰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에서 다루었다. 계량경제 모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10대 신선 수출 농산물도 CGE 모형에서 다루어지나 CGE 모형에서는 이들 품목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수출수요 함수는 해당 품목의 상대가격(수출가격 대비 수입국 가격), 환율, 수입국의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출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영향 때문이다.

관세 철폐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관세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출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세가 0%인 화훼류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관세체계가 기본적으로 누진관세 구조를 지향해왔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계측한 10개 품목 가운데 김치와 밤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5%이내이다.

돼지고기는 차액관세 형태로 비교적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다.

관세인하와 수출증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수출수요의 가격 탄성치이다. 여기서 다루어진 품목들의 경우 가격 탄성치는 대부분 1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관세가 낮아 관세인하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 농산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하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관세율이 높고 수출규모가 큰 김치와 간밤이다.

이들 품목은 가공된 농산물로 분류되어 관세가 높게 부과되고 있다. 돈육의 경우 차액관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여기서는 현재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4.3%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돈육 수출수요의 가

격 탄성치가 높아 2천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수출하는 김치의 관세율은 12%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1,400만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밤은 관세율이 9.6%로 높고 수출수요의 가격탄성치도 2.74로 관세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2,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추의 경우 역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88만 달러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고추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3%로 낮은 편이다.

토마토의 수출수요에 대한 수출가격의 탄성치는 매우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현행 관세인 3%가 완전 철폐 내지 부분철폐 된다고 해도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토마토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해도 수출증대 효과는 4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지는 관세율 5%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경우를 가정해도 2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정도이다.

종합적으로 여기서 추정한 10대 신선 농산물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5,800만 달러이다. 이 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이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 수출증대 효과 6천만 달러에 비해 큰 규모이다. 왜냐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농업부문(가공식품 제외)을 포괄한 개념

**일본에 수출하는
김치의 관세율은 12%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1,400만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으로 이 연구에서 추정한 10개 품목은 대일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의 일반균형방정식체계는 변수들의 정의식, 가격, 기업 및 적정화조건과 상품 및 생산요소시장의 청산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본은 각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노동은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다. 일반균형방정식체계의 균형값은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1998년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405산업부문을 33개산업으로 재분류하여 통합한 후에 1997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도 산업연관표를 RA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이용된 자료가 현재의 변화된 교역 및 농업구조를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농업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화훼, 기타경종작물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생산 부문은 쌀을 제외하고는 축산, 과실, 채고 등 경제작물 등에 비해 비교우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 분야도 생산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과실, 채고, 화훼, 돈육 등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가 예측되었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 21%, 과실 27%, 화훼 6%, 도축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8% 등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앞서 예측한 계량경제모형의 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쌀의 경우 양국간의 수출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가공식품의 수출증대 효과는 제과, 제빵, 면류 등 완제품에서 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 원료 및 소재(향료, 첨가물 등)는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완제품 수출 및 소재 수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일본 농산물 수출은 잡곡류, 기타작물, 임산물을 제외하고 전체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과일, 화훼류의 수출은 각각 27%, 36%,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일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육과 육가공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수출증가율은 신선 농산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식품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누진 관세 체계와 이로 인한 가공식품 부문의 높은 관세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담배 수출 규모가 작아 절대액 면에서는 의미가 크게 낮아진다.

한·일 FTA 체결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품목	수출액(천달러) (200년)	관세율 (2000년)	가격 (탄성치)	관세인하효과 (수출증가액, 천달러)	
				50%	철폐
김치	76,463	12%	-1.54	7,065.2	14,130.4
토마토	22,331	3%	-0.06	20.1	40.2
가지	4,306	5%	-0.91	98.0	195.9
고추	28,248	3%	-1.05	444.9	889.8
장미	10,295	0%	-1.46	0	0
백합	4,384	0%	-0.13	0	0
밤	83,899	9.6%	-2.74	11,034.4	22,068.8
국화	4,682	0%	-1.68	0	0
오이	9,881	3%	-1.29	191.2	382.4
돈육	330,896	4.3%	-1.43	10,173.4	20,346.8

한·일 FTA의 농업부문 피급영향

산 업	산출(%)	수출(%)	수입(%)
1.벼	1.52	-5.68	34.69
2.맥류	-12.92	-7.03	11.60
3.잡곡류	-21.98	-3.89	15.70
4.채소	1.51	21.04	33.00
5.과실	1.76	26.80	31.10
6.기타작물	-8.96	-8.25	19.16
7.화훼작물	1.28	6.26	31.87
8.낙동	2.40	.	.
9.육우	4.57	-3.04	28.54
10.양돈	1.61	.	24.03
11.기금	3.33	2.19	26.24
12.기타축산	0.29	12.48	26.09
13.농림어업서비스	0.73	.	.
14.임산물	-14.33	-5.29	14.03
15.수산물	3.63	18.06	25.86
16.도축 및 가공육	1.53	47.49	34.11
17.육가공품	2.72	12.46	26.84
18.낙농품	2.29	16.22	29.68
19.수산가공품	4.85	10.01	26.66
20.정미	1.15	-5.72	34.13
21.정맥 및 제분	1.77	0.16	18.78
22.담배	3.27	-3.03	19.86
23.과실 및 채소가공품, 기타음식료품	1.55	17.58	24.75
24.배합사료	2.53	7.59	25.53